



(주) 하나로전자 허 경 사장

“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성취해 나아갈때 기업인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또 최고라는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품질개선도 끊임없이 해야됩니다.

”

**(주) 하나로전자의 설립동기는?**

기업의 성공조건 중 중요한 것이 아이템 선정입니다.

독자적인 생산 노하우가 필요한 핵심부품일 경우가 그러하고 이러한 부품산업이 고도화 되면 될수록 분업화 되면서 중소기업의 영역이 그만큼 확대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품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첨단 하이테크 부품으로 셀룰러 부품 등 이동통신장비 부품의 핵심부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것들이 고밀도, 고주파가 요구되는 VCO (Voltage Compensative Oscillator) Filter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주력사업은 무엇입니까?**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통신기, 무선 마이크로웨이브, Modul화 된 부품 등에 들어가는

Filter를 만들고 있습니다.

셀룰러 폰 이라든지 모빌 폰 등에 들어가는 Filter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900메가 코드레스 폰 필터인 Voltage Compensative Oscillator가 양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고주파(Redio Frequency)가 요구되는 기술개발품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사장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21세기 회사의 모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업을 더 키우고 국내외적으로 부품메이커로 자타가 공인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람과 공개념을 갖고 키우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너라고 해서 제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직원들에게도 자기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주인의식을 갖도록, 인식을 바꾸어 주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입니다.

### 이동통신부품이 외국회사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경쟁해나갈 계획이십니까?

통신부품, 무선 Microwave 부품, Module화 된 부품, 즉 Filter 등은 국내에서는 경쟁회사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기술력과 품질로 맞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밀도, 고기술을 요구하는 첨단 부품산업 기술개발에 총력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 귀사의 연구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대정부 Project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구소를 발족 했는데 현재 양산하고 있는 RF, 통신, Optical Fiber부품 등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M/A Com社와 기술제휴를 맺어 연구원들의 상호교류로 기술개발에도 활성화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 국내 전자산업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고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개발부문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업계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거나,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기술개발투자를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안고있는 문제지만 저희도 역시 자금난, 인력난을 들 수 있겠지요.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런때는 기업들이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 금융이나 세제상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도는 잘 되있지만, 현재도를 잘 활용하려고 말들은 하지만,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예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 등의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 중소기업 어려움 중 하나가 인력수급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중소기업을 기피해 고급인력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에서 사람을 키워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는 보내지 못합니다만 매년 2~3명의 엔지니어들을 미국의 기술협력회사인 M/A Com社에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 경영철학은 무엇입니까?

철학이라기 보다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품산업에 사활을 걸어 21세기 최고의 부품회사로 키우기 위해서 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성취해 나아갈때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이 분야에 최고라는 회사와 경쟁할 수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품질개선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경영 방법입니다.